



## 조악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영혼의 연금술

전기를 ‘읽고 쓰는 것’의 즐거움... “위대한 삶이 훌륭한 평전을 낳는다”

김윤식 | 서울대 국문과 교수 · 문학평론가

영국 전기작가 L. 스트라치에 따르면 전기는 ‘가장 섬세하고도 고아(高雅)한 글쓰기’다. 전기작가는 자기와는 동떨어진 조악한 금속을 인간개성이라는 이름의 황금으로 변형시켜야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 화학적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또한 타인의 체험을 자신 속에 용해시켜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된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고, 사랑하다 죽는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또 죽었는가를 그린 것이 전기다. 이를 두고 ‘가장 섬세하고도 고아(高雅)한 글쓰기’라고 갈파한 사람은 저명한 영국의 전기작가 L. 스트라치다. 어쩌서 전기가 가장 섬세하다는 것일까. 이 지상에서 한 인간이 살고 난 뒤에 남긴 생기 없는 자료에 생명감 바로 그 자체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한때 세포조직과 뇌였던 것을, 무엇보다 ‘느낌’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재포착하려 하기에 그것은 섬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서 전기가 또 가장 고아하다는 것일까. 전기화(傳記化) 과정이란, 필연적으로 정제화(精製化)가 아닐 수 없는 것. 정제화란 그러니까 세련화이자 고상화 과정이기에 고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상상력으로 빛나는 인간개성

인간정신의 기록에 이르는 과정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모순 투성이를 헤쳐나오는 가시밭 길이다. 인간정신이란 불꽃과 같은 것. 인간감정이란 또 어떠한가. 항시 미정형이자 변화무쌍하며 순간적인 것. 여기에서 질서, 곧 간결성과 논리를 부여함이란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는가. 인간의 정신이나 감정의 존재방식이 그러할진댄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명쾌하다. 전기작가도 인간이란 사실이 그것. 곧 전기작가도 변화무쌍한 감정, 불꽃같은 정신으로 대상인물에 맞설 수밖에 없다. 상상력의 최대 발휘가 그것. 전기작가는 그의 자료를 조립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상상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 상상력의 질과 풍요로움에 비례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료까지 상상할 수는 없다. 사실을 판단하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태도, 이른바 재판하는 투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 대상 인물을 존경하되 진실을 말해야 함과 이는 쌍을 이룬다.

전기작가는, 자기와는 동떨어진 조악한 금속을 인간개성이라는 이름의



불우했던 조선 지식인 이광수. 그의 내면풍경에는 ‘고아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황금으로 변형시킴이 요청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 화학적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형편에 있다. 일종의 영혼의 연금술이라 함은 이 때문이다. 전기작가는 타인의 체험을 자신 속에 용해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빌어주는 배우는 물론, 영혼을 빌어주는 무당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만하면 전기가 어쩌서 모든 글쓰기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고도 고아한 것’ 인가가 조금 드러나지 않았을까.

내가 《이광수와 그의 시대》(1986), 《안수길 연구》(1986), 《김동인 연구》(1987), 《염상섭 연구》(1987), 《이상 연구》(1987), 《임화 연구》(1989) 및 《김동리와 그의 시대》(1995~1997) 등에 상당한 열정을 쏟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회고된다.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던 60년대 초기, 나는 광화문의 한 외국서점에서 썩 알팍한 책 한권을 입수했다. 에델(Leon Edel)의 《Literary Biography》(1959)가 그것. 평전 《헨리 제임스》의 저자이며 뉴욕대학 교수인 에델의 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5회에 걸쳐 행한 강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전기 중 문학자의 전기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 책만큼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를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 여기에 논의된 문학전기의 방법론이란 실상은, 에델 자신의 현장경험에서 창출된 것이었기에 그럴 수 없이 생생히 살아 있는 이론이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이었다.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사실이 그 하나.

### 친밀하면서 주관적인 관계

“전기작가와 대상 인물 사이에는 처음부터 비록 유령 같아 보일지 모르나,



자신의 전기적 자료를 감춰버린  
헨리 제임스. 하지만 그의 삶은  
전기작가 에델에 의해 복원됐다.

의미심장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몹시도 친밀한 관계인 동시에 고도로 주관적인 관계이다.”

친밀한 관계인 동시에 고도로 주관적인 관계란 무엇이겠는가. 잘 따져 보면, 대상 인물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대상 인물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내 자신에서 해방시키는 길이라 함은 이런 문맥에서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혼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지키면서 대상 인물의 영혼과 화합하는 그런 음률을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해석학적 순환이 개입하게 된다. 서사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기에 이 길이 최상의 방법론으로 되는 셈이다.

에델의 경험적 사실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자료 찾기에서의 우연성의 개입에 관한 대목이다. 자료나 증거물을 넘칠 만큼 많이 남긴 사람도 있지만, 자료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의도적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있다. 헨리 제임스가 그런 문인의 한 전형이다. 의도적으로 그는 어떤 일기도, 기록도, 편지도 남기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행동한 문인이었음이 판명된다. 저명인사들이 저널리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즈음에 살았던 이 명문 출신의 작가 헨리 제임스는 이런 풍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경우였다.

모든 것을 전기작가에게 맡겨 두는 처사란, 대중 앞에 알몸으로 놓이는 것과 같다는 것. 그렇다면 어째야 적절할까. 전기작가들을 헛갈리게 하기, 철저히 자기를 숨기기, 모든 길을 차단하고 문서를 태워 버리기가 정교하게 고안된다.

이 교활한 헨리 제임스에 정면으로 도전한 전기작가가 바로 에델인 바, 이 게임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겼을까. 물을 것도 없이 전기작가 쪽이다. 사람은 머리를 쓰지만 하면 길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교통을 차단할 수는 없는 법. 이 명제는 대상 인물에도 전기작가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에델이 찾아낸 사례가 인상적인 것은 이 원칙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 훌륭한 평전, 훌륭한 삶

에델이 찾아낸 제임스의 감추어진 자료란 어떤 것이었을까. 영국의 학계의 거물인 J. 맥켄지의 의학서적에서 그 실마리가 주어졌다.

그것은 한 소설가의 협심증에 관한 진찰기록이었는데, 정황으로 보아 그 환자가 바로 영국으로 귀화한 미국작가 헨리 제임스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병과 인연이 깊었다. 미국의사들의 기록을 찾기 시작하자 제임스의 병력 및 기타의 것들이 줄줄이 노출되지 않았겠는가.

나는 에델의 이 책을 무슨 보물처럼 간직했고, 틈틈이 대학노트에 번역했다. 부제를 <문학 전기란 무엇인가>라 하고 제목을 <작가의 방편>(삼영사, 1983)이라고 번역한 것은 내가 《이광수와 그의 시대》(1981년 집필)를 쓰던 무렵이었다.

내가 이광수에 대한 평전을 결심하고 하버드 엔칭 장학금으로도 일한 것은 1970년이었고, 상당한 자료(처녀작 <愛>의 발굴 번역)도 찾아냈다. 그러나 어쩐지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두번째로 도일(1980)한 것은 무슨 결판을 낼 참이었다. 그 실마리가 찾아진 것은, 일어로 쓴 이광수의 소설 <만영감의 죽음>(《改造》, 1936. 8)의 발굴에서 왔다. 홍지동 산장에서 칩거하던 이광수의 내면풍경이 이로써 손에 잡힐 듯이 드러나지 않았겠는가.

귀국 즉시 나는 몇 달을 두고 작품의 무대인 홍지동 일대와 이광수의 옛집(현존함)을 관찰했다. 만영감을 그려내던 작가 이광수의 내면이 그럴 수 없이 투명해지지 않았겠는가. 1936년을 한가운데 두고, 나는 한편 이광수의 과거로 소급해갔고, 다른 한편 그 이후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른바 중심점이 확정된 셈이었다. 이로써 드러난 것이 이광수 문학의 핵심인 ‘고아의식’이었다. 그 자신이 고아였기에, 국권 상실기 조선청년의 고아의식에 겹쳐질 수 있었다. 이광수 문학의 압도적 대중성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공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L. 스트라치의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훌륭한 평전이 씌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가 훌륭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